

## 민주주의와 정치인의 공적연설

### Democracy and the Public Speeches of Politicians

신철희 \_서울대학교

Shin, Chul Hee \_Seoul National University

#### 초록

정치인의 연설이 민주주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설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정치인의 연설은 민주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좋은 정치인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며, 시민으로 하여금 변화를 위한 심리적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정치연설의 판단기준으로 시대적 상황, 내용, 스타일, 전달을 제시하려고 한다.

□ 주제어: 연설, 정치인, 민주주의, 키케로, 수사학

#### Abstract

Until now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public speeches of politicians, although they have close rela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However, political orations are still critical in that they support the regime by providing democratic legitimacy, are a way of supplying qualified politicians, and excite citizens to take actions for change. And I will suggest situation, contents, style, and delivery as criteria for good speeches.

□ Key words: public speech, politicians, democracy, Cicero, rhetoric

## I. 서론: 연설이 사라진 시대

얼마 전에 한 정치인의 연설이 화제가 됐다. 다름 아니라,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했는데, 그것이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특히 유승민 대표의 연설이 주목을 끈 것은 그의 연설이 자기가 속한 새누리당이 아니라 야당으로부터, 그리고 진보 성향의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세월호 사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복지 정책 등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언급하거나 다루기 꺼려왔던 이슈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고, 그동안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낮은 자세를 취했다. 이 연설 하나로 여당 내에 몇 명 없는 정책통이었지만 대중적 인기는 별로 없었던 그가 차기 대선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에 국내 정치인의 연설이 주목을 끄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유승민 의원의 연설은 정치인의 공적연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인들 스스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연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다. 예전에는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은 으레 웅변학원에 다니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원로 정치인인 김상현 전의원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아남민국모의국회’에서 1등상을 탄 나는 본격적으로 웅변 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새벽마다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발성 연습을 하고 《세계명연설집》 같은 책들을 보며 혼자서 연습한 끝에 쟁쟁한 대학교 학생들이 나온 모의국회에서 1등상을 타기는 했지만, 정치가가 되겠다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학술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된 것이 ‘대한웅변협회’였다.<sup>1)</sup>

지독한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서울로 올라온 소년 김상현은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하며 정치인의 꿈을 키웠는데, 그는 위와 같이 연설 훈련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김상현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도 여러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끝에 상경해서 이 대한웅변협회가 설립한 웅변학원의 부원장으로 취임했을 때였다고

1) 김성동, 『한국정치 아리랑: 한 정치인이 살아온 대한민국 현대사』(파주: 동녘, 2011), 71.

한다.<sup>2)</sup>

정치인의 연설이 중요한 이유는 정치인 자신의 정치적 성공에 도움이 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치인의 연설, 보다 넓게는 수사학(rhetoric)은 민주주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보다 정치인의 연설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한 서구에서, 민주정의 등장은 연설(수사학)의 발달에 자극을 줬고, 또 역으로 연설은 민주주의가 성숙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연설이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연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부족했다. 우리는 정치인은 당연히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말 잘 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이 글은 정치인의 연설에 대한 관심 -정치인들 자신 뿐 아니라 시민들 모두의 관심- 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정치인의 연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좋은 연설의 기준(상황, 스타일, 내용, 전달)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겠다.<sup>3)</sup>

## II. 민주주의와 수사학

정치인의 연설이 정치 세계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은 쉽게 부인할 수 없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와 같이 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되었던 사회에서 연설은 정치인들과 시민을 연결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동료 시민을 설득하는 핵심적인 의사소통 수단

2) 위의 책, 71-2.

3) 그런데 언어, 특히 구술 언어가 가지는 논리적으로 해명하기 힘든 특성 때문에 연설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따라서 이 글은 엄밀한 학술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시론 또는 정치평론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다 엄밀한 이론적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아울러, 필자가 정치연설의 세계에 빠져드는 계기가 되었고, 또 (미국 정치인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수많은 좋은 연설의 사례들을 접하는데는 Michael Eidenmuller 교수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americanrhetoric.com](http://www.americanrhetoric.com))가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이 사이트에서 현대 미국 정치인들의 명연설들을 대부분 찾을 수 있다.

이었다. 그리고 혈통이나 재산 등에 의해서 정치권력이 주어졌던 전통 사회에서 연설 능력은 평범한 출신의 사람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연설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혈관과 같은 기능을 했으며, 조금 과장하자면, 연설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수사학의 등장과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살펴보겠다.

## 1. 수사학의 기원

수사학(rhetoric)은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영향을 주는 기술을 의미한다.<sup>4)</sup> 수사학의 창시자는 기원전 5세기에 시라쿠사(Syracuse)에 살았던 코락스(Corax)와 그의 제자 또는 동인 인물로 간주되는 티시아스(Tisias)라고 알려져 있다. 코락스는 당시 시라쿠사의 참주였던 트라시불루스(Thrasylbulus)가 권좌에서 쫓겨난 후의 혼란 상황을 자신이 연마한 설득 기술을 활용해서 안정시켰다고 한다. 코락스는 연설의 요소를 화두 던지기, 질서정연하게 주장 전개하기, 최종합의 도출하기 등으로 체계화 시켜서 교육했으며, 수사학의 본질은 “확실성”이 아니라 “개연성”에 있다고 이해한 인물이었다.<sup>5)</sup>

수사학을 널리 전파한 사람은 플라톤의 대화에도 등장하는 고르기아스(Gorgias)였다. 그는 시라쿠사 인근의 레온티니(Leontini) 출신으로서, 5세기 후반에 아테네로 건너가서 수사학을 가르쳤다고 알려졌다. 그는 아테네에서 민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고 연설이 중요해지자 정치적 성공을 희망하는 귀족들을 대상으로 수사학 교육을 해서 부와 명성을 얻었다.<sup>6)</sup>

말이 많거나 잘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실 수사학이 시작된 고대 그리스에도 존재했고, 오늘날의 서양에도 역시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

4) 샘 리스, 정미나 역, 『레토릭: 세상을 움직인 설득의 비밀』(서울: 청어람 미디어, 2014), 6; Aristotle, *The Art of Rhetoric*, John Henry Freese,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6), I. 2.

5) 리스, 위의 책, 28-9.

6) 위의 책, 32.

수사학에 적대적이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의 수사학에 대한 입장은 주로 『고르기아스』(Gorgias)와 『파이드로스』(Phaedrus)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고르기아스』에서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수사학을 강하게 비판한다. 플라톤에게 수사학은 진리를 알지도 못한 채 설득을 하려는, 외양만 중시하는 일종의 거짓 기술이며, 진정한 기예(techne)의 기준<sup>7)</sup>에도 미치지 못한다.<sup>8)</sup> 플라톤은 수사법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과 달리 수사학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수사학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해서 독립학문의 지위를 부여했다.<sup>9)</sup> 그는 수사학에서 수사의 의미를 “사람의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을 가진 설득적 의사소통”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리고 수사의 종류를 사법적 수사(forensic rhetoric), 정치적 수사(deliberative rhetoric), 과시적 수사(epideictic rhetoric)로 분류했으며, 수사법의 이론적 원리를 내용(content), 배치(arrangement), 스타일(style), 전달(delivery)로 규정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가 경쟁하는 다양한 요구와 이해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정의인지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민(民)을 교육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보았다.<sup>10)</sup>

고대에 수사학에 철학을 뛰어넘는 가치를 부여한 인물은 바로 로마공화정 시기의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기원전 106-43년)였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를 빌려서 수사학과 철학을 결합시키려고 했고, 궁극적으로는 수사학이 철학보다, 정치적 삶이 철학적 삶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키케로의 수사법에 대한 생각은 『웅변가에 관하여』(De Oratore)와 『수사학』(De Partitiones Oratoriae)에 잘 나타나있다. 『수사학』에서 키케로는 연설가의 고유

7) 플라톤이 제시한 기준은 세 가지인데, 첫째, 명확한 대상(subject matter)을 가지고 있을 것, 둘째, 그 기예의 이론적 원칙을 구체화하고 습득할 수 있을 것, 셋째, 공익에 이바지할 것(Michael E. Eidenmuller, *Great Speeches for Better Speaking*(New York: McGraw Hill, 2008), 16).

8) Plato, “Gorgias”, in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ed., *The Collected Dialogu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459b.

9) 김용민, “키케로에 있어서 수사학과 정치,” 『한국정치연구』 17집 1호(2008), 222.

10) Eidenmuller, *Great Speeches*, 17-8.

능력을 발견(inventio), 배치(dispositio), 표현(elocutio), 연기(actio), 기억(memoria)으로 나누었다.<sup>11)</sup> 그리고 『웅변가에 관하여』에서는 이상적인 연설가는 철학 영역인 윤리학(심리학, 정치학 포함), 물리학, 변증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며, 이렇게 철학에 정통한 연설가는 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정감에도 통달해야 하며, 감정을 자극하는데 능숙하고, 유머도 풍부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2)</sup> 정리하면, 키케로는 좋은 연설가가 좋은 정치가라는 것을 믿고 이를 이론화하려고 노력했으며, 실제 본인의 공적 삶이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 2. 민주주의와 정치인의 연설

민주주의에서는 항상 능수능란한 연설 솜씨를 가진 대중선동가(demagogue)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우려가 존재해 왔다. 그들은 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서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공익 추구가 아니라 개인의 영광과 출세였다. 이런 대중선동가의 영향력이 큰 공동체는 민을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어서 결국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자주 등장하는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한 비판도 정치인이나 정당의 대중선동적인 행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설을 들을 때 그 내용 뿐 아니라 화려한 표현법, 연설자의 목소리와 제스처 등 외양에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연설가의 말의 진위를 판단하고 그가 제시하는 비전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선동가가 등장할 위험성이 항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인의 연설을 중시하고 그것을 계속 들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민주주의와 정치인의 연설의 관계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11)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안재원 역, 『수사학: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서울: 길, 2006), 73-129.

12) 김용민, 앞의 글, 233-5.

는 민주주의의 정당화 문제이고, 둘째는 정치인의 자격 문제이다. 그리고 셋째는 현실의 당면 문제 해결에 대한 연설의 기여 문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 정치체제의 정당성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통치하느냐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통치자의 자격 여부는 대부분 공동체의 문제해결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체제는 누가 법의 제정, 해석, 적용의 권한을 갖느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방식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정치적 성격이 규정된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는 무엇보다도 말의 소통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다.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시민들을 모아 놓고 말을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은 물리적 폭력을 소유했거나 혈통, 재산이 뛰어난 사람(집단)이 좌우하는 사회보다 더 민주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사회는 무엇보다 말의 힘과 가치를 믿는 사회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치인의 연설은 그 의사소통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연설이 민주적 효과를 내으려면 연설자와 청중 사이에 평등(equality)이 담보되어야 한다. 연설자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청중은 수동적인 자세에 머문다면, 이 때 말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결국 민주주의의 실현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웅은 ‘직접적 상호가시성’(direct inter-visibility) 개념으로 설명을 시도한다. 직접적 상호가시성은 “모든 행위자가 곧 관찰자가 되고 관찰자 또한 행위자가 됨으로써 상호작용하고, 이런 상호작용을 상호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효과를 함께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3)</sup> 다시 말하면, 청중은 연사의 연설을 듣는 동시에 다른 청중의 반응도 관찰함으로써 연사의 연설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게 되며, 이는 역으로 연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류(feedback)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설자와 청중의 관계는 선생과 학생, 또는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의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연설을 듣는 청중은, ‘당신이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는데,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어디 한 번 말해 보시오. 우리가 들어보고 판단할테니,’ 뭐 이런 심정이 아니

13) 이준웅, 『말과 권력: 레토릭에서 의사소통 민주주의로』(파주: 한길사, 2011), 282.

있을까.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의 연설은 시민을 교육하는 기능이 있다. 연설의 교육적 기능을 고대 그리스에서 유행한 비극(tragedy) 공연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그리스 민주정에서 비극이 제공하는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공감한다. 아테네에서 비극 공연을 할 때는 그에 앞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공식 행사를 하기도 했지만, 비극 내용 자체가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하고 개인의 운명과 공동체의 운명의 연관성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극과 연설은 많은 청중 앞에서 평가를 받는 ‘공연적 경쟁’(performative contests)의 성격을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다.<sup>14)</sup> 또한 연설은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떻고,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청중은 연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평가함으로써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시민덕성(civic virtue)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웅변가와 정치인의 자격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이다. 탁월한 연설 능력을 가진 사람은 통치를 담당할 자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수사학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플라톤은 통치는 참된 지식을 가진 철학자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반면에, 키케로는 정치가와 웅변가의 상호 관계성을 인정했다. 그는 웅변가는 철학자가 가진 보편적 지식도 소유한 사람으로서 공공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권위를 가진다고 보았다.<sup>15)</sup> 그런데 키케로가 상정하는 철학자의 지식과 현실문제에 대한 지해도 겸비한 웅변가는 사실 이상적인 인물임에 분명하다. 플라톤의 철인왕(philosopher-king)의 ‘키케로식’(Ciceronian) 변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플라톤의 철인왕보다는 대중과의 의사소통에 더 신경을 쓴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연설가와 정치인의 자격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는 인간의 보다 근본적인 특성인 언어, 특히 구술언어와 관련되어있기

14) 위의 책, 279-281.

15) 김용민, 앞의 글, 233-5.

때문이다. 인간 언어의 구술성(orality)과 문자성(literacy)의 특징을 잘 포착한 옹(Walter J. Ong)에 따르면, 연설(수사학)은 기본적으로 논쟁적이고 대립적이다.<sup>16)</sup> 정치 세계의 특성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연설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정치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철학적 지식과 현실 적용 능력을 두루 갖춘 웅변가가 있더라도 결국 민주주의에서는 민의 인정과 선택이 필요하다. 민이 과연 장밋빛의 화려한 수사 속에서 진위를 가려내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판단 할 능력이 있는가? 그런데 민주정에 대한 유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집단의 판단 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테네인들 사이에 민의 판단 능력에 대해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소수자인 가장 훌륭한 자들보다 대중이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만하고, 다소 문제점이 있기는 해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것 같다. 다수자(polloi)는 비록 그중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는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 소수자인 가장 훌륭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여러 사람이 비용을 각출한 잔치가 한 사람의 비용으로 제공되는 잔치보다 더 나은 것과 같다. 그들은 다수고, 각자는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자가 함께 모이면 대중은 마치 여러 개의 발과 여러 개의 손과 여러 가지 감각을 지닌 단 한 사람처럼 되는데, 성격(ethos)과 지성(dianoia)도 여러 가지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수자는 음악과 시도 더 잘 판단한다.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저 사람은 저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모두를 합치면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다수자 가운데 개개인보다 우월한 것도 바로 이 점이다.<sup>17)</sup>

위의 인용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명시적으로 정치가의 연설에 대한 대중의 판단 능력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설이 음악이나 시처럼 일종의 공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수의 귀족보다는 다수의 민의 판단

16) 월터 옹,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서울: 문예출판사, 1995), 172.

17)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정치학』(서울: 숲, 2009), 1281a41- 1281b10, 162-3.

능력이 더 낫다는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집단의 판단능력에 대한 생각은 마키아벨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로마사 논고』에서 민과 군주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예컨대 능력이 비슷한 두 인물이 정반대되는 주장을 내세울 때 인민이 보다 나은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들으면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민이 용기와 이득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과오를 저지르는데, 군주 역시 많은 경우에 자신의 욕망, 즉 인민보다 훨씬 많은 욕망으로 인하여 과오를 저지른다. 관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인민은 군주보다 훨씬 나은 선택을 하는 편이다. 게다가 인민은 나쁜 평판을 가진 인물이나 나쁜 습성을 가진 인물을 높은 자리에 임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군주는 쉽게 그리고 수많은 방식으로 그러한 임명을 하도록 설득된다.<sup>18)</sup>

정치인의 연설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위에서 논의한 정치인의 자격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연설이 실제 삶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는 것이다. 멋진 연설에 박수 치고 환호를 보냈지만 그것으로 그만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연설의 무용성(無用性)에 대한 입장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뛰어난 연설능력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바마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뛰어난 연설 능력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무명의 촌뜨기였던 오바마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도 그의 뛰어난 연설능력 때문이었지만, 그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자 그를 공격하는 표적도 또한 그의 연설능력이었다.<sup>19)</sup>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이 한창일 때, 처음 예상과는 달리 힐러리가 오바마에게 계속 뒤지자 힐러리 측에서 오바마를 ‘희망에 미친 사람’(hope monger),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다. 이러한

18) 니콜로 마키아벨리, 강정인·안선재 역, 『로마사 논고』(파주: 한길사, 2003), 1권 58장, 251.

19) 리스, 앞의 책, 17.

공격에 대해서 오바마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절규가 단지 말일뿐입니까? (미국 독립선언문의) ‘우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여기고 있다’라는 선언이 단순히 말일 뿐입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사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라는 구절이 단지 말일 뿐입니까? 연설일 뿐입니까? 연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 넣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미합중국의 대통령직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다시 믿음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sup>20)</sup>

대통령으로서의 오바마의 능력이 기대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뛰어난 연설을 통해서 미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변화를 향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할 이유는 없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그 실현을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말을 통해서 ‘선포되어야’(preached) 하는 것이다.<sup>21)</sup>

연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주체는 바로 시민 자신이라는 것, 변화의 동력도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의 역할은 바로 시민들의 가슴 속에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믿음을 심어주는 것에 있다. 연설은 바로 그 불씨를 지피는 수단인 것이다.

20) .....Don't tell me words don't matter. 'I have a dream.' Just words?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Just words? 'We have nothing to fear, but fear itself.' Just words? Just speeches? It is true speeches don't solve our problems, but it was also true if we cannot inspire the country to believe again, then it doesn't matter how many policies and plans we have. And that is why I am running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cause American people want to believe and change again. Don't tell me words don't matter.....(2008년 2월 16일 위스콘신에서 연설).

21) Eidenmuller, *Great Speeches*, 1.

### Ⅲ. 어떤 연설이 좋은 연설인가?

세계 역사에서 뛰어난 연설과 연설가는 수 없이 많다. 그렇다면 어떤 연설이 좋은 연설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키케로는 연설가의 활동을 발견(inventio), 배치(dispositio), 표현(elocutio), 기억(memoria), 연기(actio)의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sup>22)</sup> 키케로는 이 다섯 단계를 연설가가 연설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생각했지만, 기억을 제외하면 이것을 좋은 연설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발견은 연설의 내용과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가를, 배치는 연설이 잘 짜여진 공연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표현은 얼마나 언어적으로 아름다운 말과 수사법이 사용되었는지를, 그리고 연기는 목소리, 표정, 제스처 등이 얼마나 전달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키케로가 말한 것 외에 상황 또는 시대적 사명을 기준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정치인의 연설의 가치는 자신과 공동체가 처한 역사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 좋은 연설이라면 위 기준들을 두루 갖춰야하겠지만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기준에 따라 각각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설을 제시해 보겠다.

#### 1. 상황(시대적 사명)

우리는 보통 똑 부러지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아무개를 국회로 보냅시다’라는 말을 우스갯소리 삼아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자질이 단순히 말 잘하는 것에 있지 않으며, 좋은 연설의 조건도 화려한 수사에만 있지 않다. 말을 잘하되, 상황, 특히 공동체 전체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자신과 청중을 포함한 공동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 그리고 전 세계와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시대를 잘 성찰한 좋은 연설이 많겠지만, 필자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케네디(John F. Kennedy, 1917-1963) 대통령의 베를린

22) 키케로, 앞의 책.

장벽 앞에서의 연설이다. 이 연설이 워낙 유명하다보니 후에 레이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장소에서 흉내를 냈지만 케네디만큼의 감동을 주지는 못했다. 보통 케네디의 명연설을 논할 때 그의 대통령 취임 연설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연설이라는 기준에 그의 베를린 장벽 앞에서의 연설만큼 부합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1963년 6월 26일 서베를린에서 케네디가 연설할 때는 동서냉전이 극에 달했고,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지 2년 정도 된 상태였다. 전후 4대국의 분할정책으로 동독 영토 내에 외딴 섬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서베를린의 시민들은 언제 소련 군이 서베를린을 점령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때 케네디는 서베를린으로 날아가서 짧지만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설을 하게 된다. 케네디는 베를린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서베를린 시민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모두 베를린 시민이며, 그런 의미에서 케네디 자신도 “베를린 시민”(“Ich bin ein Berliner”)이라고 선언한다.<sup>23)</sup>

자유는 나눌 수 없고, 한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 모두가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로울 때, 우리는 이 도시가 이 나라와 위대한 유럽 대륙과 함께 이 평화롭고 희망찬 지구에 하나로 참여하게 될 날을 고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서베를린 시민들은 그들이 거의 20년 동안 최전선에 있었다는 사실에 당연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자유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모두 베를린 시민입니다. 따라서 자유인으로서 저도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라는 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23) Freedom is indivisible, and when one man is enslaved, all are not free. When all are free, then we look -- can look forward to that day when this city will be joined as one and this country and this great Continent of Europe in a peaceful and hopeful globe. When that day finally comes, as it will, the people of West Berlin can take sober satisfaction in the fact that they were in the front lines for almost two decades. All --All free men, wherever they may live, are citizens of Berlin. And, therefore, as a free man, I take pride in the words “Ich bin ein Berliner.”

케네디는 동서냉전 시기에 서베를린 시민들이 느끼고 있었을 두려움에 깊이 공감했으며, 그것을 단지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명과 자부심을 일깨워줬던 것이다.

## 2. 내용

두 번째 기준인 내용과 관련해서 소개할 연설은 현 뉴욕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의 부친이자 그 역시도 뉴욕주지사였던 마리오 쿠오모(Mario Cuomo, 1932-2015)가 1984년 노트담(Notre Dame) 대학에서 했던 연설이다. 그의 “도덕적 신념과 공적 도덕성: 한 가톨릭 주지사의 관점”(“Religious Belief and Public Morality: A Catholic Governor’s Perspective”)이라는 제목의 연설은, 올해 그의 서거로 재조명되기도 했는데, 좋은 정치인이란 단순히 권력 다툼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 뿐 아니라 종교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설득력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설의 초반에 쿠오모는 자신의 신앙과 정치적 신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특히 미국에서 정치와 종교는 우리의 충성심을 양분합니까?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또는 도덕과 정부의 분리를 의미합니까? 이것들은 상이한 전제들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의 가톨릭 신앙과 나의 정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전자는 어디에서 끝나고 후자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또는 양자는 정말 나뉘어 있는 것입니까? 나뉘지 않는다면, 나누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들은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공직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적어도 최근까지는 - “한 도시에서 짓밟히고 쫓기면” 다른 도시로 도망가려는 성경의 권고에 주목하면서 이 질문들을 회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망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고 대답은 모든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답은 너무 단순하고, 대부분의 경우 단편적이며, 몇몇은 순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선동적입니다....오늘 저는 그것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sup>24)</sup>

그는 가톨릭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단지 정치적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에서 나온 것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종교적 가치를 우리의 공적 문제에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질문은 너무 광범위해서 하나의 답을 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동의를 통해서 우리의 공적 도덕성을 창조하고 미국에서는 그 동의가 어느 정도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의 종교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오”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기반한 가치는 우리의 공적 도덕에 있어서 선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제안되는 것이 공공 정책보다는 사적 재량에 남겨두는 것이 더 나은지, 그것이 자유를 제한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목적과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야 하는지,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지 나쁜 결과를 내는지, 전체적으로 그것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단지 분열을 야기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분명히 잘못된 답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간단한 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의 역사와 관습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기독교 국가를 의도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신자들은 어디에 버렸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기독교가 법이 되어야 합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접니까?<sup>25)</sup>

---

24) Specifically, must politics and religion in America divide our loyalties? Does the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mply separation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Between morality and government? And are these different propositions? Even more specifically, what is the relationship of my Catholicism to my politics? Where does the one end and the other begin? Or are they divided at all? And if they're not, should they be? These are hard questions. No wonder most of us in public life -at least until recently- preferred to stay away from them, heeding the biblical advice that if "hounded and pursued in one city," we should flee to another.

Now, however, I think that it is too late to flee. The questions are all around us, and answers are coming from every quarter. Some of them have been simplistic, most of them fragmentary, and a few, spoken with a purely political intent, demagogic.... Today I would like to try to help correct that.

서론에서 언급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이 이례적으로 국회의장 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 언론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도 주로 연설의 내용 때문이다. 그가 지난 4월 8일 신임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했던 국회 연설은 화려한 수사도 없을뿐더러 전달에 있어서도 극히 평범했다. 그러나 그동안 보수여당의 정치인들의 입에서는 듣기 힘들었던 진보적 아젠다 제시와 자기반성이 있었다. 재보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 내의 다수세력인 친박(親朴)의 반발을 무릎 쓰고 이런 연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데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리고 단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여야 화해와 상생을 강조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의 연설이 인정받았던 것은 여당 내의 정책통으로 유명한 그의 국정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가 연설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 직후 대학생들 앞에서 연설한 것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정치가 아니라 서양 철학사에 대한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다. 오바마 못지않은 청산유수 같은 연설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클린턴은 영국 유학 시절에 세계의 주요 고전을 섭렵했다고 한다. 풍부한 내용과 통찰이 담긴 정치인의 연설은 오랜 시간의 독서와 성찰의 결과물인 것이다.

- 
- 25) Ultimately, therefore, the question "whether or not we admit religious values into our public affairs" is too broad to yield a single answer. "Yes," we create our public morality through consensus and in this country that consensus reflects to some extent religious values of a great majority of Americans. But "no," all religiously based values don't have an a priori place in our public morality.. The community must decide if what is being proposed would be better left to private discretion than public policy; whether it restricts freedoms, and if so to what end, to whose benefit; whether it will produce a good or bad result; whether overall it will help the community or merely divide it. The right answers to these questions can be elusive. Some of the wrong answers, on the other hand, are quite clear. For example, there are those who say there is a simple answer to all these questions; they say that by history and practice of our people we were intended to be -and should be- a Christian country in law. But where would that leave the non-believers? And whose Christianity would be law, yours or mine?

### 3. 스타일

연설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청중에게 영향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스타일은 다양한 표현과 수사법을 동원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수단이며, 어떻게 보면 언어적 동물인 인간에게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연설은 잘 고안된 구조와 화려한 수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의 연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심이 담겨있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하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스타일은 청중이 듣기 좋은 말이나 단순히 화려한 단어와 어구만을 늘어놓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진정한 수사는 연설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연설자와 청중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과 가치를 아름답게 표현해낼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좋은 연설의 기준이며 수사학의 핵심인 스타일의 효과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의 연설에서 나올 때 배가 되는 것 같다. 필자가 소개할 연설은 전문 정치인이 아닌 퇴역한 군인, 그러나 너무 유명한 군인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장군의 연설이다. 그는 1962년 모교인 웨스트포인트(West Point)가 수여하는 실바누스 타이어 상(Sylvanus Thayer Award) 수락 연설에서 위대한 군인은 전투와 전략에만 능한 사람이 아니라, 전장(戰場)이 주는 고독감과 두려움,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을 누구보다 섬세하게 느끼며, 또 그것을 멋진 말로 표현해 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웨스트포인트의 표어이기도 한 ‘의무, 명예, 조국’(Duty, Honor, Country)을 주제로 삼아서 그는 손자뻘 되는 사관생도들에게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 한 다음, 자신의 50여년의 군복무를 회고하며 다음과 같은 아름다우면서도 애절한 표현으로 마무리 한다.

저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다가온 것입니다. 저의 지난날의 소리와 빛깔이 희미해져갑니다. 지난날의 꿈을 깜빡거리며 사라져갑니다. 그 추억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것으로, 어제의 눈물에 젖기도 하고, 미소로 달래지고 어루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마치 마법

의 가락처럼 가냘픈 기상나팔 소리와 둥둥거리며 멀리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를 듣습니다. 잠이 들면 꿈속에서 고막을 찢는 교전 소리, 머스켓 총의 달그락거림, 그리고 이상하고 구슬픈 전장의 중얼거림이 또다시 귓전을 맴돌곤 합니다. 하지만 회상이 끝날 무렵이면, 저는 언제나 웨스트포인트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메아리치고, 다시 메아리쳐 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의무, 명예, 조국.

오늘로써 여러분과 함께하는 접호는 마지막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숨을 거두고 저승의 강을 건널 때, 저의 마지막 생각도 육사, 육사, 또 육사일 것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sup>26)</sup>

#### 4. 전달

정치인의 연설에서 내용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에 큰 차이가 생길 것이다. 처칠이나 히틀러 등 대중연설에 뛰어났던 인물들은 거울을 보며 제스처와 표정까지 연습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연설의 전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목소리다. 지면이라는 한계 때문에 음성을 직접 들려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명연설가로 기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가슴을 울리는 호소력이 있다. 연설은 글이 아닌 말을 통해서 의사

---

26) The shadows are lengthening for me. The twilight is here. My days of old have vanished, tone and tint. They have gone glimmering through the dreams of things that were. Their memory is one of wondrous beauty, watered by tears, and coaxed and caressed by the smiles of yesterday. I listen vainly, but with thirsty ears, for the witching melody of faint bugles blowing reveille, of far drums beating the long roll. In my dreams I hear again the crash of guns, the rattle of musketry, the strange, mournful mutter of the battlefield. But in the evening of my memory, always I come back to West Point. Always there echoes and re-echoes: Duty, Honor, Country. Today marks my final roll call with you, but I want you to know that when I cross the river my last conscious thoughts will be of the Corps, and the Corps, and the Corps. I bid you farewell.

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소리에 연설자의 진심, 열정, 절박함이 담길 때 청중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이다.

점점 가슴을 울리는 연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정치적 공과와 이념적 입장을 떠나서 근래에 보기 드문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 위에서 스타일의 좋은 예로 들었던 맥아더 장군이 의회에서 행했던 고별연설을 직접 들어보면 목소리에 품위와 자신감이 흘러넘치며, 왜 그러한 때 미국인들이 대통령 후보로까지 생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 IV. 글을 마무리 하며

인간의 삶에서 말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연설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대중선동가나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여전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달리 보면, 민주주의에는 어쩔 수 없이 대중 선동적이거나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의 여론이 권력의 향방과 정책의 결정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군주나 귀족이 다스리거나, 독재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민의 의사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 정치인의 연설은 그것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것이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현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시대다. 잘 포장된 이미지를 통

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가벼워진 시대에, 자신의 삶과 영혼을 담아서 국민을 설득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는 정치인의 연설이 그리워진다.

- ▶ Submitted : 2015. May. 15.
- ▶ Reviewed : 2015. May. 25.
- ▶ Accepted : 2015. May. 26.

## References

- Aristotle. 1926. *The Art of Rhetoric*. John Henry Freese,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Aristoteles. 2009. Cheon, Byung Hee, trans. *Jeongchihak*. Seoul: Sup.
- Cicero, Marcus Tullius. 2006. An, Jae Won, trans. *Susahak: Malhagi ui Gyuchik gwa Chegye*. Seoul: Gil.
- Connolly, Joy. 2007. *The State of Speech: Rhetoric and Political Thought in Ancient Rom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idenmuller, Michael E. 2008. *Great Speeches for Better Speaking*. New York: McGraw Hill.
- Kim, Sung Dong. 2011. *Hangukjeongchi Arirang : Han Jeongchiin i Saraon Daehamninguk Hyeondaesa*. Paju: Dongnyeok.
- Kim, Yong Min. 2008. “Kikero e isseoseo Susahak gwa Jeongchi.” *Hangukjeongchiyeongu* 17jip 1ho, 217-239.
- Lee, Jun Woong. 2011. *Mal gwa gwonlyeog: Rhetoric eseo Uisatong Minjujuui ro*. Paju: Hangilsa.
- Leith, Sam. 2014. Jung, Mi Na, trans. *Rhetoric: Sesang eul Unjigin Seoldeug ui Bimil*. Seoul: Cheongeorammedia.
- Machiavelli, Nicolo. 2003. Kang, Jung In · An, Sun Jae, trans. *Romasa Nongo*. Paju: Hangilsa.
- Ong, Walter. 1995. Lee, Ki Woo · Lim, Myung Jin, trans. *Gusulmunhwa wa Munjamunhwa*. Seoul: Munyechulpansa.
- Plato. 1989. “Gorgias.” in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ed. *The Collected Dialogu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